

(서식 3)

자기소개서

소 속	○○○고등학교	직 위	교사	성 명	○○○
-----	---------	-----	----	-----	-----

만경강 하류에서 걸어서 10분 정의 거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. 지금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만경강이 매립되었지만, ○
○초등학교 시절에는 강 앞에 있는 조그만 산에 올라가서 만경강을 보면서 친구들과 그림을 그리고 놀면서 성장을 했고 이후 ○
○중학교를 1979년 2월에 졸업하고 1979년 3월 ○○○○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다. 학교가 너무 좋아서
만족하고 잘 다니다가 복잡한 집안 형제들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다가 ○○○○고등학교를 자퇴하
고 부모님을 돌보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농사를 지었다.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○○○○고등학
교에 편입하고 졸업하면서 바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.

너무도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기에 비록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그간 집안일로 인한 서러움과 방황했던 일들은 뒤로 하고 그동
안 못 한 공부만 하기로 결심했다. 열심히 공부한 결과 한국 지도자 육성장학재단 4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4년 동안 학비 격
정 없이 공부하게 되었고 교직도 이수하여 교사자격증도 취득하게 되었다. 4년 동안 못 했던 공부를 대학에서 마음껏 했다.

대학을 졸업하고 1996년 3월 1일 ○○○○고등학교 교사로 임명이 되었다. 내가 청소년기에 방황했기에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
은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학생들을 지도했다.
또한 학생을 가르치면서 영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동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고 대학원을 마친 후에 박사과정에도 입학하고
계속해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을 계속해서 병행했다. 그 결과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지도했
다.

나의 교직 목표는 영어라는 과목을 도구로 하여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이다. ○○여고에 근무하면서 학생들과 호흡하는 일이
좋아서 계속 학년 부장을 맡아서 학교 일에 적극 참여했다. 교무, 연구부장보다는 학년 부장을 더 좋았고 그 이유는 가까이에서
학생들과 교수-학습활동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. 학교가 많이 변했다 할지라도 교사의 보람은 자신이 지도한 학생이 더
성장해서 졸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. 그런 까닭에 가까이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감할 수가 있는 부서가 학년 부장
이라 생각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.

연구하다 보니 자연히 외부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다. 먼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교과서를 검정 검토하는 위원으로 활동하고
그 후에, 교육부에서 교과서 검토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되었다. 이후에 수능능력시험 외국어 검토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참여하
게 되었고 그 경험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나에게 영광스러운 경험이었다. 이후에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에
서 3년 동안 강의도 하고 전라북도 도 교육청의 기간제 교원 인력풀을 구성하기 위한 출제위원으로 참여하여 도 교육청 일에 참
여하게 되었다. 또한 초창기 전라북도 교육청 진학지원단으로 활동하면서 각급 학교에 순회하면서 진학에 대해 강의도 하게 되었
다.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명박 행정부 시절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(National English Ability Test) 일명 **** 개발에 따른 쓰
기 부분에 참여하여 활동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『****쓰기 완성』이란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. 쓰기와 말하기 평가가 앞
으로 영어교육에서 반드시 시행될 거로 생각하고 일선 학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.

소 속	○○○고등학교	직 위	교사	성 명	○○○
-----	---------	-----	----	-----	-----

살아가면서 실패와 방향, 무기력, 우울감 등을 한번도 경험하지 않고 살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.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한다. 그런 경험들을 살려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지도한다면 그 경험들은 값진 경험이 될것이라 믿는다. 내가 청소년시절에 방황했던 그런 경험들은 용성중 학생들 지도와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학생들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고 깊이도 깊어 질것이라 생각한다. 일방적인 학교운영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반감과 불평만을 불러일으킬 뿐 도움이 안 된다. 사소한 일이지만 이야기들 듣고 듣는 과정속에서 서로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는 과정이 그 조직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.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혼자서는 아무일도 할수 없다. 다소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서로 협력하고 돕고 도움을 받는 것이 그 조직을 강하게 만든다.

완전한 인간이 없다. 특히 중학교 학생들은 불안정한 상태로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다. 중학생은 학생들이 무언가를 인식하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지켜봐 줄 수 있는 여유와 인내가 필요한 시기의 학생들이다. 단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야지 방치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. 따라서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봐 주는 우리의 자세가 요망되고 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싶다. 물론 중학교 과정에서 공부를 잘하면 더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공부에 흥미가 없을 수 있다. 그런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접촉과 대화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교육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싶다. 그런 마음으로 이 학교의 교장에 지원하게 되었다.